한 형 조

무문관 탐방

48

용담의 촛불 ④

용담은 촛불을 불어 꺼 버렸다. 그로하여 덕산의 질긴 일상적 분별의 묵은 훈습이 떨어져 나갔다. 희미한 빛의 관성을 연연타가 다시 캄캄한 어둠 앞에 충격적으로 던져진 순간, 덕산은 자신의 무의식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결별,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두려운 축복이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인디아나 존스처럼 성배를 만나기 위해서는 절벽 밖으로 발을 내밀어야 한다. 내미는 순간 보이지 않는 길이 생기거나 혹은 천사가 내려와 그를 건네줄 것이다.

백척간두의 그 경험이 얼마나 두려울까. 수행자들은 덕산처럼 한사코 촛불에 매달린다. 자아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전자 밑바닥이 뚫리지 않도록" 그리하여 자신을 보존하고 영속시키도록 속삭인다. 서산의 실제 선수행지침서인 〈선가귀감〉에는 수행자들의 다양한 체험기를 싣고 있다. 허깨비와 싸우다가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기도 하고, 달콤한 여인의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는 등 수행자들은 온갖 환상과 환각의 마구니에 시달린다. 수행자는 그 마지막 유혹을 떨쳐야 한다. 그때 티벳관 〈사자의 서〉에서처럼 새로운 천지가 펼쳐진다. 그는 더 이상 생사에 연연해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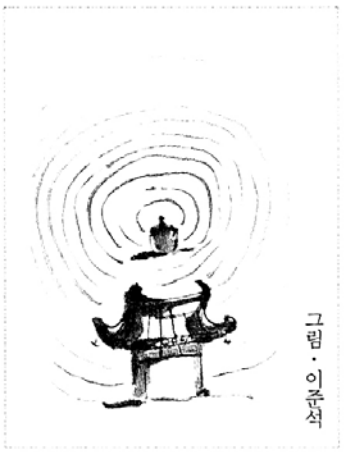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윤회의 쳇바퀴를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다.

"주전자 밑바닥이 뚫려"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될 때, 세계는 나와 더불어 깊은 신뢰와 일체감을 회복한다. 그때 세계 혹은 대상은 나와 구분되지 않는다. 본원의 에너지의 연기적 과장만이 파도에 흔들리는 빈 배처럼, 그저 존재할 뿐,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물을 수 없다.

인간의 에너지, 그 본원(本源)은 순수하고 고요하다! 이것을 일심(一心)이라거니 진여니 자성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른다. 사람들은 무시이래(無時以來)의 생멸(生滅)의 윤회(輪廻)를 뒹굴며 온갖 추상(序相)을 다 겪다 보니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 산정 위의 백조처럼 청정(淸淨)함을 까마득히 잊어 버렸다. 그래서 본래 성취된 구원의 세계를 단순한 추상으로, 자기와는 먼 초월적 공간으로, 혹은 신의 은총과 계시를 빌려야만 기약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 불교는 이같은 생각을 무엇보다 경계한다. '부처는 없다'는 불퉁스런 대꾸는 약과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패역무도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서 말한다. "어디서 찾고 있느냐, 네가 곧 부처이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바로 궁극이며, 부처이며, 본원의 청정이며 법계(法界)의 실상임을 충격적으로 알려준다. 덕산은 그 실상을 촛불의 명멸이라는 심리적 충격을 통해 파지한 것이다.

진리를 바로 보고 본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뿌리깊은 습관인 자아의 분별(vikalpa)을 떨쳐 내야 한다. 경험적 세계의 존재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악은 우리의 그릇된 분별이 고착시킨 것이다. 거친 분별이 사라지고 미세망념(微細妄念)까지 시각(始覺)의 계재(階梯)를 통해 사라질 때 자아의 고착은 사라진다. 그때 우리의 일상(日常)이 곧 성사(聖事)가 되고, 세속과 열반은 어울리며,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이원적 대립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쉬 믿으려 하지 않는다. 소승(小乘)이나 인천교(人天敎), 삼승(三乘)과 십이분교(十二分敎)는 부처나 여래, 보살님들이 우리네 비참한 인생들과는 유를 달리하는 고상한 분들이며, 수천 수만 겁을 뼈를 깎고 살을 태워도 다가갈지 말지한 계위(階位)라고 가르쳐왔다. 이상을 높이 세운 것은 보리(菩提)에로의 발심(發心)을 위한 것이었지만 깃대를 너무 높이 세우는 바람에 사람들은 건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선은 이 심연을 일거에 뛰어넘어, '중생은 없고 오직 부처만 있다'고 주장자를 쾅쾅 찧는다.

덕산은 자신의 닫힌 눈을 열어준 용담에게 깊이 절했다. 용담이 어떠냐고 묻자 덕산은 그간의 잘못을 사과했다. "이후로는 천하 노화상(老和尙)들의 말씀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선을 무찌르러 온 사람이 누구보다 열렬한 선의 옹호자가 된 것이다. 덕산은 그 증거로 그동안의 방대한 교학 연구를 끌어다가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 용담을 떠나 천하를 독보했다. 그 인연일 것이다. 그는 언어와 논리, 혹은 정보로 궁극을 엿보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했다. 임제의 고함과 더불어 덕산은 무지막지한 몽둥이로 유명하다. 무얼 물어보겠다고 입만 열라치면 그는 예의 그 몽둥이로 학인들에게 찜질을 해 댔다. 말을 해도 몽둥이질이요, 입을 닫고 있어도 몽둥이질이니 제자들은 맷집부터 단단히 키워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덕산의 방편에는 깊은 노파심과 선연한 지혜가 숨쉬고 있다.

하루는 덕산이 법상에 올라 "오늘은 아무 말도 않겠다. 만일 묻는 자가 있으면 몽둥이 서른대를 내리겠다"고 했다. 한 승려가 나와서 절을 했다. 덕산이 붙잡고 두들겨 팼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웬 몽둥입니까." "너는 어디 사람이냐." "신라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미리 쾌 놓는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무의식 · 의식 통합 일체감 회복

분별 미세망념 사라질때 세속과 열반 어울려

극단 피하고 中道로 가자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7

정사유 ③

고통과 행복 어둠과 밝음 등 이 세상은 양극현상 공존 마음열고 지켜보면 꿈 소멸

수행의 길을 택한 사람은 마땅히 중도(中道)의 길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쾌락이나 고통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명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신념을 지키고 변화를 막기 위해 틀짓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틀 속에서 자라는 것은 망상이다. 첫 발심이 강한 집착을 만든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처음 법륜(法輪)을 굴릴 때부터 양쪽 극단과 중도에 관해서 설했다. 두 극단에는 집착이 발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고 싶을 때, 한쪽에서는 고통이 일어난다. 이 싸움은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며, 부처님은 '중도'로써 이 싸움을 가로질러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시인 겔리 스나이더(Gary Snyder)는 시(詩) '아보카도나무(The Avocado)'에서 이렇게 읊었다.

"불법(佛法)은 아보카도나무의 열매와 같다/한쪽이 맛있게 익을 때, 다른 쪽은 점점 딱딱해져/…/열매씨는 매우 미끄럽고/아주 작아 아보카도 씨라고 상상할 수 없어/우리의 본래 자성(自性)도 그 씨와 같지/씨가 자라 아보카도가 될 때까지/ 어떤 종자인지 알수가 없듯이 우리는 자성을 보지 못해/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운 씨가 빠져나가 듯이/우리 자성도 인식(생각)의 그물을 벗어난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기꺼이 고통, 행복, 열정, 냉소 등 모든 변화를 공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을 열면 이 세상에는 고통과 행복이 함께 있는 것을 이해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세상은 기쁨 · 고통, 오르막 · 내리막, 밝음 · 어둠, 더위 · 추위 등 이원적(二元的)으로 이루워져있다. 두 부분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복만을 찾으려고 해도 고통은 또 다른 운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마음을 열기 위해선 먼저 고통의 참 모습을 알아야 한다. 몸과 마음은 고통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명상 속에서 맞부딪친 고통은 그냥 보고 헤아리면 된다. 유난히 정신집중한 다든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단지 보고 헤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귀중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수피교 교의(敎義)를 음미해 보자.

"어떤 고통이든지 극복하라. 우리는 고통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다. 세계의 어머니는 자신의 심장에 세상의 고통을 담는다. 우리는 그 심장의 일부이며, 고통의 일부분은 우리의 몫이다. 연민보다는 즐거움으로 고통을 대해야 한다. 수행의 자세는 갓 피어난 꽃과 같다. 비 · 바람을 묵묵히 견디며 피어나는 꽃처럼 가만히 앉아 고통을 보고 경험할 때, 고통은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

'보고'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네팔, 인도에서 '천연두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는 의사 브릴란트의 일화가 있다. 그의 일행이 천연두 발병 마을을 방문했을 때 원주민들은 신심(信心)이 아주 강해 인간의 삶과 질병은 모두 신(神)의 선물이라고 믿고 있어 천연두를 퇴치하려는 백인의 백신 접종은 당연히 거부됐다. 결국 그의 일행은 총을 겨누고서야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 이 일은 브릴란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그는 명상수행을 하고 있었고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원주민의 신앙을 '미개한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다. 브릴란트를 더욱 놀라게 한 일은, 접종 후 마을 촌장의 태도였다. 촌장은 그의 일행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당신이 백신을 접종한 것은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패배는 부끄러운 아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손님이다"

촌장은 두 극단의 집착을 떨쳐버리고 브릴란트 일행을 인내와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가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 스스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는 것은 스스로를 결박하는 것이 아닐까.

번역=오종욱 기자

불교와 수학

51

연기

김 용 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6

지구상에 완전히 같은 緣 없어 중중무진 연기속의 '나' 귀한존재

지난 호에서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늑대 소년의 보기를 들어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환경의 산물'인 것이다. 이 사실을 불교적인 표현으로는 모든 것은 '연에서 형성되며 연이 없어질때 사라진다'고 한다. 미적분학은 변화하는 대상을 연구하는 수학이다.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에서 크고 작은 쇳덩어리 두 개를 던져 지상에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관한 속도, 가속도를 연구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변수, 함수의 내용이 밝혀지고 미적분 발견의 길을 열었다. 다소 형식적으로 설명한다면 '시간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데 쇳덩이가 낙하할 때 그 위치는 단 하나의 변수,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쇳덩이와 지구 사이의 관계이다. 이와같이 두 개의 운동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이체(二체)문제라고 한다.

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이체문제에 관한 운동은 완전히 규명되었다. 뉴턴은 미적분학과 그가 발견한 역학 이론을 이용해서 그때까지 큰 수수께끼로 여겨져 왔던 여러문제를 정확히 해명했다. 바닷물의 간만, 일식, 월식 현상, 행성의 불규칙적인 궤도, 혜성의 주기… 등의 이유가 완전히 해명된 것이다. 이들 일련의 발견으로 이전에는 신학적으로, 또는 미신으로 설명되었던 일들이 물질적인 관계임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인간의 마음이나 신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들 과학적 성과는 과학 혁명으로 이어지고 과학 만능의 사상을 낳았다. 특히 미적분학은 모든 운동, 변화를 해명해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차츰 연구가 계속되는 사이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때까지 과학의 대성과로 여겨져 온 천체 운동에 관한 문제는 결국 운동체가 두 개뿐인 2체문제에 국한되며, 그나마 현상을 극도로 단순화한 것에 불과함을 보이는 것이다. 가령 바닷물의 간만현상은 운동체가 지구와 달, 두 개만으로 국한해서 본 것이다.

우주에는 수많은 천체가 있다. 그러나 달과 지구 이외의 역학적인 요소가 지극히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들을 일절 무시해서 '달과 지구'만의 관계로 국한해서 본 것이다. 운동체가 3개 이상 있는 현상일 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서는 그 운동궤도를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약 백년 전에 포앙카래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수학사상 유명한 삼체(三체)문제이다.

최근에 복잡성의 과학이 등장함으로써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카오스(혼돈)적 현상의 본질이 이 '삼체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인간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크고, 작은 요소들은 헤아릴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사실은 곧 같은 세포로 만들어진 복제 인간일지라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같은 환경적 요소, 즉 연(緣)을 갖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환경이 자신을 변하게 하는 외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것 이외에도 내적인 요소가 있다. 곧 인간의 의지(마음)이다. 이것이 곧 인간에게 존엄성을 주는 자유성이다. 인간은 자유성이 있음으로써 외적인 영향을 자신의 마음에 여과하여 외적 압력, 자극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

원효대사는 '모든 것은 마음의 소생(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龑수不二)'라고 했다. 마음먹기에 따라 해골에 고인 물도 감로수일 수 있고, 감로수도 썩은 더러운 물일 수 있다. 이들 마음의 변화도 연기의 이치에 따르고 있다.

'모두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명제에 내포된 연기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이 중중무한인 것이다. 하나의 연기의 씨는 연쇄 작용을 하며 순간마다 새로운 요인을 만들고 파문처럼 중중무진의 수로 늘어간다. 이 다양한 연기로 이루어진 가능성 속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 불교적인 인간의 자유는 가능성이다. 인간은 다양한 가능성 속에 던져져 있기에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희귀(稀貴)하다는 것과 보물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 세상에 흔히 있는 것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물도 공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배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통해 단 하나밖에 없는 나야말로 최고로 귀한 것이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석가모니의 말씀을 또 한 번 되새기게 된다. 단지 하나만 있는 나의 존재는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IMF 시대의 가정 상비약!!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남산 스님의 파스요법

1,000원만 가지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고통 없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신국판/10,000원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파스를 붙인 후 3분이면 뚝!

술을 마신 다음 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파스 한 장이면 말끔!

오래된 위장병도 파스
요법 15일이면 통증이 싹!

잠 못 이루는 불면증도 파스를 붙인 후
20분이면 잠들게 하는 신비한
비법을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명상
TEL 733-4277
FAX 733-4279

각 질병에 대한 파스 요법의 실례

■ 소화기 질병 12종
신경성 위장병 · 위 궤 양 · 위십이지 궤양 · 설 사

■ 호흡 순환기 질병 8종
기관지 천식 · 중 이 염 · 감 기 · 두 통

■ 비뇨기 질병 12종
당 뇨 병 · 생 리 통 · 발기부진 · 변 비

■ 신경계 질병 28종
어깨의 통증 · 좌골 신경통 · 만성관절 류마티즘 · 치 통

■ 기타 질병 15종

■단체 강연 및 개인 강연회 참석요청이 쇄도하고 있사오니 2주일 전에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TEL. 733-4277~8 / 전화주문시 발송료는 출판사에서 부담합니다 외환은행 022-13-440647-8 예금주 이영기